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제 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

“교회의 갱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제 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지난 3월 27일(월)에 개강하였다.

이날, 강남 YMCA 대강당은 전국에서 모여 온 목회자들의 배움의 열기로 가득 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인 이종윤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모든 발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교회의 발전과 성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하며 교회의 강단이 새로와질 때 한국교회와 민족이 새로와질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1992년에 개설하여 이번으로 일곱번째 학



기를 맞이한 목회자세미나에는 네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동문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목회자들의 새로운 만남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 된 교회관'을 세워가고 있다.

참여한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회자세미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감사로 표하기도 했다.

“목회와 영성”이라

는 주제로 오는 6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계속될 이번 세미나는 제 1교시에는 이종윤 목사가 로마서를 강해하며, 제 2교시는 영성에 대한 국내의 석학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 1995년도도 1/4을 달려와서

올해 계획의 25%를 이루었는가?

1995년도 1/4을 달려왔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어를 걸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새해를 설계하던 3개월 전을 기억하면, 시편기자의 말처럼 세월이 살같이 매우 빠르게 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보이지 않지만 시간의 경계 속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반성과 점검과 재정비의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지난 3개월간 우리 교회는 산상수련회와 청지기수련회로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한 해를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순결서약식을 주관하는 등 「정직·절제·사랑」운동에 솔선수범해 왔다. 민족복음화를 위한 「농어촌 100교회 지원」과 농어촌 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전도회의 활동과 사업의 내용이 예전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의 제 7학기 목회자세미나가 개강을 했고, 5월에 개척

될 제 5차 킷신학세미나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의미있게 시작하고 진행해 온 이같은 일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고 교정하며, 영적인 진보와 경건에 유익이 되었는지도 돌아보고, 연초의 계획에서 차질은 빛은 것이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어야 할

말씀과 기도의 생활, 전도의 삶,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 등이 헤이해졌다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나는 아직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3:12-16).

* 4월의 교회 행사 *

- 2일(주일) / 정기제직회
- 매주 월요일 / 목회자 신학세미나
- 9일(주일) ~ 15일(토) / 고난주간
- 16일(주일) / 부활절(성찬식)

남성찬양대의 혼성 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 베들레헴찬양대 전 가족이 함께

우리교회 여섯개의 찬양대 중 가장 굵고 든직한 목소리를 내는 곳 『베들레헴 찬양대』.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찬양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 찬양예배 때에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온가족이 함께 찬양을 드린다. 주일 낮에는

각 부서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가족이 찬양예배만이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마련한 기회이다.

오늘 찬양예배의 찬양을 위해 베들레헴 찬양대원의 가족(초등부 이상)은 오늘 4시부터 찬양 1실에서 연습을 가질 예정이다.

창세기 강해



아브라함의 시련

(22장 1 ~ 22절)

이종운 목사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이며 그의 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 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통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1.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미래가 끊어지는 듯한 명령입니다. 인간적으로 과거의 줄을 끊고 미래의 희망의 줄도 끊어버려야 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대대에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창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창17:9)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없는 살 수 없을 것같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어야 할 자리를 이삭이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삭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신 요구입니다.

2.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려고

이삭을 통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

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하시겠다는 언약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 밖에 바라볼 곳이 없으니 차라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약과는 상반되는 듯한 명령을 하시니 아브라함에게는 큰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임을 믿었으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3절).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더욱 더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3.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나무를 쪼개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위에 올린 후 칼을 들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5절).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히11:17-19)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를 믿었으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순간에, "아에게 네 손을 대지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12절)하신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삭은 육신을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은 육신 뿐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십자가 상에서 절규 하셨습니다. 이삭을 치려던 손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부활을 통해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더욱 더 믿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힘써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핍박받는 자

세상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핍박이 있다. 자신의 실수와 과오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고한 사람에게 부당한 이유로 환란이 임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속히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서 기회로 삼아야 하겠지만 후자의 경우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를 들어 우리를 교훈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고난은 피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원하여 선택한 고난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고통인고로 매우 고상한 대가를 지불한 핍박이라 하겠다.

인일과 번영을 위하여 의를 헐신짝처럼 저버리는 현대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많기를 기도한다.

찬양은 노래가 아닌 우리의 삶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찬양은 예배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며 사랑의 고백인 것이다.

이 시대에 있어야 할 찬양이 서울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길 기도하면서 구성된 찬양팀과 글로리아 합주단은 금요일 심야전도 때의 찬양과 주일 찬양예배 전 찬양 인도, 그리고 목회자세미나 등 교회의 각종 행사 때마다 찬양의 순서를 담당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팔 소리와 같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워지길 간구하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바람타고 온 천지에 퍼져나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다. 찬양을 통해 고독한 자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절망한 자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눌린 자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병약한 자에게 건강과 치유의 주님을 전하는

■ 우리는 지금 - "동역자를 찾습니다"

찬양으로 복음전하는 찬양팀 · 글로리아합주단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찬양팀과 글로리아 합주단은 농·어촌 교회

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며 실력을 닦고 있다.

찬양팀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할 동역자를 찾고 있다. 거창한 선발 기준은 없지만 꼭 다짐해 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습하는 시간을 즐겁게 투자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리겠다는 마음자세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곧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함께 할 형제, 자매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찬양팀 첫 모임 / 4월 14일(금) 심야예배 후 (오후 10시 30분) 2층 예배실
- 글로리아 기타반 연습 및 기도회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탁아부실

제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현장

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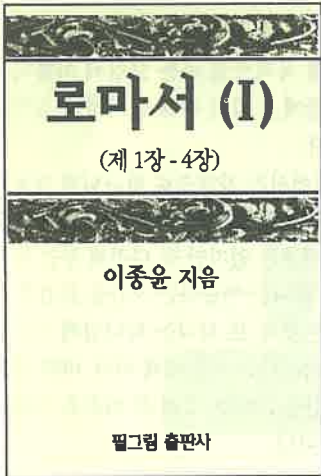
↑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 배우기 위해 YMCA강당을 가득 메운 목회자들
"주님, 제 자신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

↑ 작은 정보도 목회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기에 물어보고, 적어두고, 챙겨두고...

↓ 그간의 안부와 다른 교회 소식을 묻고 들으며

↓ 월요일 새벽마다 옥담층에는 김밥싸는 권사님들





필그림 출판사
로마서 (I) 출간

(제 1장 - 4장)

이종운 지음

필그림 출판사

이종운 목사의 로마서 강해 첫번째 책이 필그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 행하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지난 5학기와 6학기에 강해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성경의 다 이이론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제 1장에서 4장까지의 강해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로마서(I)국판 320면 / 값 6,000원
신앙과 행위의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의와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설교한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저자는 "탄광에서 금

을 캐는 광부처럼 깊이 파면 팔수록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며 "복음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철저한 변증으로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어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 영향력이 인정된 로마서는 서신이라기 보다는 신학적 해설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필그림출판사에서는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계속될 이종운 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칭의의 주제를 다룬 제1권 (로마서 1 - 4장)에 이어, 제 2권 - 성화(5 - 8장), 제 3권 - 유대인 문제(9 - 11장), 제 4권 - 실제적 문제(12 - 16장)등 총 네권의 책으로 나누어 출판할 예정이다.

필그림출판사에서 그간 간행한 책은 요한복음, 빌립보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등의 강해서와 강연모음집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주일설교 요약집 『순례자의 길』, 그리고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던 것을 모아 만든 컬럼집 『순례자』 등이 있다.

필그림출판사에서 간행한 모든 책은 교회 2층에 있는 테이프보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사가 총판하여 전국의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제언

“안일의 잠에서 깨어야”
-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자 -

이영자 (집사, 2교구)

산을 오르는 사람이 정상에 향해 갈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힘겹게 오르다가 막상 정상에 올라 뒤를 돌아보면, 험한 길을 헤치고 온 것에 새삼 새로운 감회를 갖게 되기 마련이다.

아직 정상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올라오던 길에서 숨 한번 돌려쉬는 기분으로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들은 젖어있었고, 말없이 잡는 손과 손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느껴졌었다. 저녁예배에 오는 우리들의 걸음은 빨랐었다.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본당인 6층에 자리를 잡아야 비디오가 아닌 '실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 시작 전에는 한 명이라도 더 앉기 위해 자리를 좁히려려고 반드시 한번은 자리를 정돈해야 했지 않았던가?

이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 단장한 집은 멀지도 않은 바로 길 건너편이었다. 예기치도 못했던 우리 모두는 '여호와 이레' 합성을 지르며 찬양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새성전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또 한번 큰 합성으로 입당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주일 낮에는 I, II, III부 예배로 세차케 드리고 있다. 그에 비해 저녁 찬양예배는 단 한 번 뿐이다. 그런데 왜 빈 자리가 보일까? 혹시 우리는 우리들이 현재 누리는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해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부정적 시류에 물든 것은 아닐까? 우리의 행태가 모세가 유대 족속을 빗대어 이른대로 "여수론이 살찌매 밭로 찻도다. 네가 살찌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신 32:15)고 한 경고를 듣고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는 일에 첫 열심과 첫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닐까?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서 안된다. 마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떠밀려 나온 것처럼 시작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두들 말세라고 한다. 모든 징조가 심상치 않다. 남에 대한 비판은 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옹고 그림은 쉽게 판단하면서, 자기 모습을 살피는 일에 인색해 지지는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각자 달란트를 받은대로 자기 자리에서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모여서 함께 한 소리로 기도하기에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이세이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② 4월 3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선지자들의 영성(김정우 박사)
- ③ 4월 11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요한 신학에 나타난 영성(이상훈 박사)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주님의 십자가를 목상하며, 회개와 근신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3. 제 6차 킴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